

토요타 구라가이케 기념관 : 전시

토요타 구라가이케 기념관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요다 기이치로(1894~1952)의 생애와 그가 설립한 토요타 자동차 주식회사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이치로의 부친인 도요다 사키치(1867~1930)가 1896년에 도요다식 기력 직기를 발명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1925년에는 아들과 함께 일본 최초의 전자동 직기인 ‘도요다 G형 자동 직기’를 설계했습니다. 두 직기 모두 획기적인 발명으로 평가받아 기계유산(사단법인 일본기계학회가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계 관련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유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념관에는 두 직기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키치는 이 G형 자동 직기의 특허를 영국의 회사에 매각하였고, 매각 수익의 일부를 기이치로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메인 전시실에서는 기이치로가 토요타 자동차를 설립하기 전과 후의 도전에 대해 15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1933년 웨보레 자동차의 해체와 1935년 A1 시제작차 공개 테스트 등, 토요타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모습이 음성과 효과음이 포함된 정교한 디오라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1940년대에 활약한 토요타 자동차와 트럭의 5분의 1 모형, 토요타 자동차 최초의 제조 공장의 상세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1938년,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자동차 공장인 고로모 공장(현 토요타 본사 공장)이 현재의 도요타시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대규모 자동차 공장으로서 사택과 병원, 학교 등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시대를 앞선 설비를 갖추고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시공간의 중앙에는 토요타를 대표하는 자동차 2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36년의 AA형 세단은 A1형의 프로토타입에서 발전한 토요타 최초의 승용차입니다. 전기계통의 부품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의 새 제품과 같은 상태입니다. AA형의 맞은편에는 실제로 움직이는 토요벳 크라운(Toyopet Crown) RS형이 있습니다. 1955년에 출시된 이 차는 처음으로 모든 공정을 일본에서 진행한 자동차이자 토요타가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토요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메인 전시실 밖에는 구라가이케 아트 살롱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아트 갤러리에서는 토요타가 소유한 회화 작품을 계절에 따라 번갈아 가며 전시하고 있습니다. 히라야마 이쿠오(1930~2009)와 클로드 모네(1840~1926) 등, 일본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